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1년산 시장격리곡 매입 완료

고창군은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2021년산 시장격리곡 매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1차 1만6520톤 매입을 시작으로, 2차 2797톤 3차 3885톤, 세차례에 걸쳐 총 23212톤을 인수하였으며, 이는 전라북도 시장격리곡 낙찰물량의 28%를 차지한다.

시장격리곡 매입은 농가, 농협, RPO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를 대상으로 매입신청자가 매입가를 작성 응찰해 저가순으로 낙찰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시장격리곡 매입을 통해 지난해 쌀 과잉생산으로 관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입암면, 작은 목욕탕 재개장 준비 완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정읍시 입암면 작은 목욕탕(이하 작은 목욕탕)이 9월 1일부터 재개장한다.

입암면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시설 대청소와 방역, 보일러 이상유무 확인, 수도점검 등 개장 준비를 마쳤다.

작은 목욕탕은 온탕과 냉탕, 사우나, 탈의실 장애인시설 등 최적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자동 혈압기 체크기와 빨래 건조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같은 건물에 경로당까지 들어서 있어 지역민들의 맞춤형 힐링공간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목욕탕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남·여 요일 지정제로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월·수·금요일에는 여자·화·목요일은 남자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요금을 기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춰 주민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5세 이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추석 대비 식품위생관리 강화

정읍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등 집중 점검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펼친다.

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3개 반 9명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명절 성수 식품 제조가 공업소 19개소와 대형마트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 24개소, 전통시장 내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53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 원료의 적정 여부,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위생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지도·

계몽·교육 등을 강화해 전통시장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 식품 위생 점검을 통해 비위생적인 식품을 근절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성수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계화중학교 치매극복 선도학교 지정

치매안심센터와 업무 협약식

부안군은 계화중학교를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지난 26일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계화중학교는 백산·서림고등학교, 하서·상서중학교에 이어 치매극복 선도학교 제5호로 지정되었으며, 전 교직원과 학생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파트너로서 봉사하게 된다.

치매파트너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 주변에 치매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주변에 널리 알리기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의미한다. 계화중학교는 치매파트너



부안군은 계화중학교를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지난 26일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너 중 하나인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안 만들기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안군은 치매극복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치매파트너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063)580-3066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제26회 고창해풍고추축제 성료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고창군 해리면 체육관 광장 일원에서 "정정 해풍고추, 그 참맛과 참빛 체험!"을 주제로 고창해풍고추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군의회 의장, 군의원 김갑진 고추축제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 김만기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광중 재경군민회장, 김기봉 재광군민회장, 관내

기관단체장, 군민과 관광객이 참석하여 청정농산물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고창해풍고추축제를 축하했다.

해풍고추 직거래장터에서는 농가가 직접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판매해 축제를 찾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고창해풍고추축제 개막식 모습. (가운데) 고창군수 심덕섭, (오른쪽) 임정호 군의회 의장, (왼쪽) 윤준병 국회의원.

2일간 직거래 장터를 통해 고추 4320근이 판매돼 6천 48만원의 판매실적을 남겼다.

해풍고추 많이 담기, 고추 높이 쌓기, 고추 컬리, 고추 찝기 빨리 따기, 고추 무게 맞추기 등 많은 체험활동으로 관광객들은 놀이를 즐기며 고창해풍고추의 특징과 우수성을 확인했다.

한편 27일 열린 해풍고추 품평회에서는 부안면 이장우 농가의 빛깔 고운 고추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해풍고추로 선정됐고, 최우수상에는 성송면 안옥주농가, 우수상은 해리면 이진현, 흥덕면 박만현 농가가 각각 수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초산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위원장 윤균상)는 지난 26일 초산동 주민센터에서 초산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정읍시 초산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소통 공감 간담회 열어

정읍시 초산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위원장 윤균상)는 지난 26일 초산동 주민센터에서 초산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초산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주민참여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모여 초산동의 현실과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고,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미래 발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는 지역주민과 주민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자유롭게 편한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경제발전과 도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의 기능을 되살리고, 주거 환경과 주거 복지 개

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산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주민 의견을 초산동 도시재생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간담회를 계기로 초산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초산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스스로 만드는 살고 싶은 마을 초·화·로'를 테마로 △두꺼비집 수리 공동체 육성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만들기 △골목 정원 조성 등 소규모 그린 뉴딜정책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촌관광 '각기각색 부아노로' 상품 운영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남부안청자 로네트워크협의체(대표 유재홍)는 29일, '각기각색 부아노로' 투어상품 운영방안 및 부안군 농촌관광 발전 방향에 대한 회의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가졌다.

'각기각색 부아노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지역단위 농촌관광"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농촌관광 투어상품으로, 우리 군이 가진 풍부한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하



부안군 농촌관광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안군 농촌관광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5가지 컬러 '각기각색 부아노로' 투어상품의 기획·홍보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